



성난 파도 밀려드는 해안도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에 집채만 한 파도가 연이어 밀려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2022년산 노지감귤 착과량 2.1%↓ 감귤관측위원회 노지감귤 착과상황 조사 결과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45만7000t 내외일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노지감귤 착과 상황 관측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320곳·640그루를 대상으로 열매 수·크기·품질(당, 산 함량) 등을 관측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올해산 노지감귤은 전년 대비 1만t(2.1%) 감소한 45만7000t 내외(44만 1000~47만 3000t)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시 지역은 착과량이 많았으나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은 착과량이 적었다.

또 나무 1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972개로 전년 842개보다 130개 많았고, 최근 5년 평균 827개보다 145개 많았다. 제주시는 1079개로 전·평년 보다 각각 441개, 359개 많았다. 지난해 해거리(한 해를 거름)로 착과량은 많았고, 지역별로는 고르게 착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910개로 전·평년 보다 각각 135개, 23개 적었다. 동지역은 해거리로 전년 대비 40% 감소한 반면 읍면은 증가해 지역별 나무별 착과량 편차가 컸다.

열매 크기는 41.9mm로 전년 46.7mm보다 4.8mm, 5년 평균보다 1.0mm 작은 것으로 관찰됐다. 생리낙과율은 89.1%로 전·평년 보다 각각 0.1%, 0.5% 높았다.

품질조사 결과, 당도는 7.2브릭스(Bx)로 전·평년보다 각각 0.7Bx, 0.6Bx 높았고, 산 함량은 3.32%로 전·평년보다 각각 0.2%, 0.22% 낮았다. 과실 초기 강수량이 적어 과실 크기는 작아졌으며,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길면서 당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예상량은 오는 11월 20일 시점에서 재배면적 1만 4607ha 중 비생산 면적을 제외한 1만 4229ha 기준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힌남노’ 제주 직격... 온 섬에 생채기

6일 새벽 제주 동부 할빈 후 경남에 상륙
삼각봉 505mm ↑... 상륙 전부터 폭우 내려
소방 출동만 77건... 인명구조도 7명 달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무서운 속도로 제주섬을 활취고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3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35hPa, 최대풍속 초속 49m, 강풍반경 430km의 강도 '매우 강'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후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후 9시 서귀포 남쪽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뒤 제주 동부지역을 활취고 경상남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태풍 힌남노의 규모는 중심기압 940hPa, 최대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430km로 여전히 강도 '매우 강'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5일 오후 9시부터 6일 오전 3시 사이가 최대 고비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와 최근접 시간은 서귀포 6일 0시, 제주시 오전 1시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낮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소 한 마리가 저류지에 갇혀 몸 80%가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를 당해 가까스로 구조됐으며, 다음날 낮 12시7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한 주택에서 성인 남성보다 큰 나무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3일 오후 3시 44분쯤

에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이 침수돼 소방 펌프차로 견인되기도 했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4일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총 77건의 태풍 관련 출동에 나섰다. 유형을 보면 인명구조 5건(7명), 안전조치 39건, 배수 33회(348t) 등이다.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제주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4일부터 5일 오후 4시34분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 149.5mm, 서귀포 116.5mm, 안덕 화산 143.0mm, 성산 89.6mm, 송당 138.0mm, 고산 241.9mm, 대정 246.0mm, 윗세오름 505.5mm, 삼각봉 475.0mm, 사제비 438.5mm 등이다.

태풍 힌남노는 6일 아침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다. 5일부터 6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50mm인데, 많은 곳은 400mm 이상까지 비가 내리겠다.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산지는 최대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 강풍도 6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0~6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6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저지대 침수와 하수 및 하천 범람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특히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간대에는 문과 창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막힌 상황이다. 5일 제주국제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항공편 142편 중 36편(출발 17편·도착 19편)이 결항됐고, 320편은 사전에 결항이 결정됐다. 바닷길 역시 9개 항로·12척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송은범기자

착한가격업소 재료구입비·전기요금 등 지원

도, 추석 이후 순차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원재료비 인상 등 고물가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업소당 200만원의 재료구입비를 추석 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여름철 늘어난 전기사용량과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가격업소의 7~8월 전기요금도 업소당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21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했으며, 지난 1일까지 신청한 171개 업소는 추석 전 우선 지원하고, 2일 이후 신청업소는 추석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단을 통해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직접 나선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매월 60t(6만 4,800원)까지 감면, 해충방역(연 2회) 지원, 종량제봉투 등 물품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출 이자의 최대 2.8%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배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주 코로나19 신규 390
잠정집계 5일 <17시 기준> 누적 32만5369

행복가득 웃음가득
한가위 되세요

제410회 임시회 10.18 - 11.9

행정위법
불편사항
부당행위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부당한 행정사례 없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도민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접수기간 '22. 9. 1.(목) - 9. 23.(금)

접수내용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행정·교육전반

의견제출 홈페이지 게시판(www.council.jeju.kr) 의회 SNS, 전화, 우편, 직접 방문(해당 전문위원회실)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